



2020년도
제32호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1 시민사회단체

IOC 위원장에게 KOC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한 발송



2 문화체육관광부

KOC분리 강한 의지...관련법
개정 연내 발의 추진



3 국제올림픽위원회

체육회-KOC분리 '외압' 우려...
정부에 체육회와 협력 촉구



4 스포츠윤리센터 제보

인권침해 신고 중 최다는
'폭력'



5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스포츠단체 재조정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는 IOC 제임스 맥클레오드 국장의 편지와 관련하여, IOC
바흐위원장에게 KOC 독립 추진 관련 한국 스포츠계의 상황과
KOC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한 발송**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과스포츠, 인권네트워크 바람,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9월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스포츠단체 재조정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는 IOC 제임스 맥클레오드 국장의 편지와 관련하여, KOC 독립 추진 관련 한국 스포츠계의 상황과 KOC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KOC의 '독립'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이자 개혁조치를 강조했다. KOC 독립은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 이후 만들어진, 한국 스포츠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이자 한국의 운동선수와 청년세대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서한에서는 KOC와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자신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KOC의 독립을 권고하게 된 강력한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는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자살 등 최근에 벌어진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의 조직구조가 선수들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재선을 위해 IOC 위원으로의 위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서한을 통해 IOC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한체육회가 IOC 헌장이 보장하는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스포츠 인권보호 노력과 개혁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포츠 인권 보호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KOC와 대한체육회가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관련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조치(KOC 독립)가 IOC 헌장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IOC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과스포츠, 인권네트워크 바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우리는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올림픽연대와 NOC 협력국장인 제임스 맥클레오드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2020년 9월 9일 서한을 보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한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 단체의 재조정에 대한 IOC의 우려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민단체는 이 서한에 대응하여 한국 현황과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하며, 당신이 잘못 인도되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이는 분리가 아니고 오히려 독립입니다. 우리는 독립이 선수와 한국 청년세대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조치로 믿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 스포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의 일부로 이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립으로의 권장은 KOC가 수행해야 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태만과 무능함에 기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 지난 2년 동안, 성폭력 (2019년 1월에 언론 보도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과 자살 (2020년 6월 어린 삼종경기선수의 경우)은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조직적 구조가 유지된다면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현 대한체육회장은 내년 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재선을 위해 IOC 위원으로의 위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체육회가 단일조직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IOC 현장이 보장하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스포츠 인권보호 노력 및 스포츠 개혁에 협조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KOC는 올림픽 정신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정책과 올림픽 정신 및 운동을 이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단체가 한국에서 더 좋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1947년 인준 이래, 지속적으로 IOC와 협력적이었으며, 올림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가 대한민국 스포츠에 어떠한 역할과 효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스포츠에서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KOC가 한국인과 선수들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OC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내 진행사항과 발전하는 한국 스포츠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과스포츠, 인권네트워크 바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September 21, 2020

Dear, Thomas Bach, President of the IOC:

Honorable President,

We learned through the media a few days ago that Mr. James MacLeod, the Director of Olympic Solidarity and NOC Relations has sent a letter to the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KSOC) dated of Sept. 9, 2020. It expressed the IOC's concern about the reformation of sports entity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In this regard, our NGOs would like to inform you the situation in Korea and facts in response to this letter, and hope you are not misled.

First, it is not a separation, but an independency, rather. We believe the independency is a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measur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thletes as well as Korean young generation. It has been already recommended by the Sports Innovation Committee of the Korea, which w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promote Korean sports innovation formed by the governmen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t as part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Second, the recommendation of independency is due to the facts of negligence and inability to perform the given duties that the NOC of Korea should hav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holding the KSOC responsible through audits. At least the last two years, the sexual assaults (in case of former Olympic Gold medalist, media exposed in Jan. 2019) and a suicide (in case of a young triathlete in June, 2020) should have been prevented. We estimate these are the only a few of many incidences. We believe if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s maintained, similar tragic cases will continue to occur.

Third, there is a strong doubt that the current president of KSOC would take advantage of his status as an IOC member for the re-election of KSOC occurring in early next year.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 about the fair elections.

Fourth, currently KSOC exists as a single organization in Korea. In many cases, by pointing a finger to the violation of independence guaranteed by the IOC Charter, KSOC refuses to cooperate or follow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tect sports human rights and sports reform. NOC of Korea should make an active effort to guarantee sports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lympic spirit. It has been expected that KSOC carries out his duty both government's direction and the Olympic spirit and movement. We strongly believe that two entities will create a better sports environment in Korea.

Since recognition in 1947, NOC of Korea has consistently cooperated with the IOC and continues to spread the Olympic movement. We are well aware of the role and effect the IOC has brought to Korean sports. Many citizens expect the government's action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Korean sports. We hope that the independent KOC will be able to do more effective and valuable activities for the Koreans and all athletes.

We appreciate the interest and hard work of the IOC, and we will continue to inform you of the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sports.

Sincerely yours,

cc.
President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Cultural Action
Humanrightsport
Korea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roup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ports & Human Rights Institute
The Collaborative Contingent Committee for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Late Triathlon Athlete Incident and Sport Reform





문체부, KOC분리 강한 의지... 관련법 개정 연내 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KOC 분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어제(16일) 시도체육회장과 간담회에서 KOC 분리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KOC 분리는 국제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4천억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정부 체육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엘리트 체육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KOC 분리에 대한 문체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여당과 총리실, 청와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체육회장 간담회에서는 KOC 분리에 부정적 입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KOC 분리 문제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의 입장차이가 약간 있다. KOC 분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emins@kbs.co.kr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6652&ref=A>





IOC, 체육회-KOC 분리 '입압'

우려...정부에 체육회와 협력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체육회-KOC 분리 추진과 관련해 IOC가 9일 보내온 서한을 15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매클리오드 IOC 올림픽 솔리더리티 &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장 명의로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OC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한 스포츠 폭력의 대응 조치로서 대한체육회를 체육회와 KOC 두 개의 단체로 다시 분리하고자 하는 외부의 압력을 매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스포츠 폭력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계, 특히 대한체육회는 분리보다는 단결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다"며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의 총력 지원과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대한체육회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OC는 8월 31일에 체육회 대의원들이 발표한 체육회-KOC 분리 반대를 완전하게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 대응책을 협의할 것,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을 보탬 것을 촉구했습니다.

IOC는 아울러 체육회의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점에 놀랐으며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는 자주적인 스포츠 기관이어야 하며, 어떠한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치권과 체육회의 갈등은 IOC의 개입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다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회-KOC 분리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문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오랜 반목과 소모적인 논쟁을 거쳐 지난 2009년 전격 통합한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라는 건 또 다른 체육 단체 이원화로 정부 체육 정책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증폭하고 체육인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건은 체육회-KOC 분리와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한 체육회의 정관 개정 요청을 문체부는 5개월 가까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NOC 대표 몫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기간 IOC 위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jo@sbs.co.kr

자료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0980&plink=ORI&cooper=NAVER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신고 중 최다는 '폭력'

지난 2일 신고·상담 접수를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에 보름간 총 7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독립 법인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지난 16일까지 신고 26건, 상담 47건 총 73건이 접수됐다. 신고 사건 중 인권침해 신고로 분류된 건 13건이며, 폭력이 7건(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침해(기타포함)는 4건(14%), 성폭력은 2건(7%)이었다.

비리는 금품수수, 품위훼손 등 8건(30%), 횡령·배임 3건(11%), 조직사유화 2건(7%) 순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및 상담자는 학부모가 4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선수 30명, 지도자 8명, 체육계 관계인 2명, 기타 1명이었다. 익명 신고·상담도 25명이나 됐다. 주요 신고·상담 경로는 전화(1670-2876)가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조사권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청 파견조사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고인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률, 의료, 심리·정서 등의 다각적 지원과 신고인 및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수어통역·활동보조인 배정 등)도 계획 중이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인·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onion@hankookilbo.com

자료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916370005984?did=NA>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가동... 쇼트트랙폭력 조사 경기도체육회 나선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6010003816>

용인시,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60072?ref=naver>

문경시, 문경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개최 취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90835143427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ODKU

춘천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55곳 22일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128300062?input=1195m>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25>

파주시, 21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https://www.news1.kr/articles/?4063843>

진주시 실내공공체육시설 개방...21일부터 단계적 개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8_0001170721&cID=10812&pID=10800

'무더기 코로나19 발생' 익산시, 체육·복지시설·어린이집 폐쇄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62100055?input=1195m>

옥천에 2023년까지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비 158억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58100064?input=1195m>

최윤희 문체부 차관 "체육계 인권 보호, 경기단체장이 앞장서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167100007?input=1195m>

임오경 의원, 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명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18000670>

경기도의회,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59742?ref=naver>

보령시,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개설...체육인 인권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4062627>

미래형 스포츠학교 모델 '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청신호

<https://www.news1.kr/articles/?4062143>

문체부 장관 "체육회·KOC 분리는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 취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181900007?input=1195m>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방법 1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국민은행 086601-04-095940

방법 2

온라인 정기 후원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 